

한국·우크라이나 양봉기술교류 방문기

서울대학교 농생대
우건석 명예교수

기간 : 2007년 6월 14일 ~ 6월 24일



▶ 유센코대통령의 환영사(좌측부터 : 유센코 대통령, 전기현 회장)

지난해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우크라이나 유센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대되었다. 한국 양봉역사상 외국 국가 원수의 초청으로 한국 양봉인들과 관련 단체장이 해외로 초청을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단은 한국양봉협회 전기현 회장님 앞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초청장을 보내와 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전기현 회장님과 우리나라 양봉산물과 양봉기구를 먼 곳에 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한 여러 관련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양봉산업 기술협력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가장 뜻 깊은 일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세밀한 준비와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농림부 차관, 통합양봉협회장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한국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체류 현황을 방문기로 연재하여 우리나라 양봉인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방문단의 출국과 귀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전기현 한국양봉협회장님께 고마움을 특별히 전하고 싶다.

6월 14일

비온 뒤라 하늘이 맑다. 방에서 밖을 보니 여객터미널 지붕이 비행기처럼 눈 아래 보인다. 일생에서 색다른 생각의 콘셉트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니 좋다. 해보는 것이 없다면 안되는 거지! 우리나라 H기업의 창업주 C씨의 “해봤어?” 라고 물어본 것이 지금 H사의 기적적인 발전을 가져온 철학이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는 주저 없이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망설이는 것보다 몇 배나 발전적이다.

우리들 일행은 오전 11시에 공항대합실에 다 모였다. 몇 가지 여행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도중 날씨가 고르지 않아 몇 차례 간담이 싸늘한 에어포켓을 겪을 때마다 우리 일행은 큰 소리를 지르며 마치 비행기가 추락하는 양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했다. 여하튼 여행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즐거운 삶의 다른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 전기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행 16명은 외국 국가 원수의 초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하게 여겼고, 이번 여행이 알찬 결실이 있게 되도록 서로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여정을 잡았다. 9시간 비행 후, 일행은 모스크바에 있는 쉐르메쓰 국제공항 제 2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입국 수속을 위해 짐을 챙기고 여객들과 같이 수속을 밟는데 두 시간이나 걸렸다. 우리들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느린 수속은 더위에 지친 우리들을 짜증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느긋하게 기다렸다. 현지 시간 오후 9시, 우리들은 숙소로 향하는 관광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우리들을 모스크바에서 안내해줄 가이드 최 군도 만날 수 있었다. 서로 수인사를 나누고, 버스는 천천히 일행이 목을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 그러나 백야현상으로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

방 배정을 받고 우리 일행은 모스크바에서 첫날을 보내게 되었다. 모두들 피곤한 듯 세수는 내일 하자며 졸린 듯 잠자리에 들었다.

6월 15일

아침에 일어나니 맑은 날씨다. 그러나 잠깐 뒤에는 비도 뿌렸다. 아침 일찍 산책도 하고 몸을 푸는 일행들이 많아 오늘 시작될 여행도 건강한 모습으로 임할 것 같다. 호텔에서 아침식사는 뷔페로 하였다. 새



▶ 만개한 피나무의 모습

벽인데도 백야현상으로 사방이 흰하니 일행 중 누구는 “이곳은 꿀벌의 활동시간이 아주 길겠어요.” 라고 물었다. 물론 활동 시간이 우리보다는 길지만, 꿀벌은 활동시간이 많아지면 일벌의 수명과 여왕벌의 산란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오전 9시15분, 간편한 복장으로 우리 일행은 호텔을 나섰다. 호텔에서 모스크바 타임즈 신문을 보니



▶ 러시아의 아까시나무 모습

올해 러시아는 7.2%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대학생들의 학비는 연 2,000~10,000\$로 학교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기사도 있었다. 러시아에는 158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으며, 특히 모스크바에 많은 민족이 모여 있다고 한다. 이곳은 위도가 높은 곳이라 해마다 10월 중순에서 12월에는 거의 매일 눈이 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모스크바 사람들은 모스코비치가 되고 싶어 한다. 즉 이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신분을 갖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시내를 지날 때마다 정리가 잘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모스크바 전체면적의 50%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 녹지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차창에 보이는 나무들은 루보참나무, 자작나무, 칠엽수, 딱총나무, 피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포플러 등 밀원식물이 많이 심어졌다고 우리 일행들은 반가워했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방문했다. 규모도 크거니와 건물이 웅장한 모습을 보여 소련연방시대의 영화를 느낄 수 있었다. 대학 캠퍼스 안에도 어김없이 관상용 사과나무, 루보참나무, 라일락나무, 해당화, 아까시나무, 피나무, 칠엽수 그리고 자작나무 숲이 인상적이었다. 오전에 보았던 가로수에 심어진 피나무와 같이 모스크바 대학교 정문 양옆에도 피나무가 계획적으로 심어져 있었다. 모스크바 대학을 나와 자작나무 숲이 아름답게 펼쳐진 캠퍼스 앞에서 우리 일행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으로 잠시 머물 수 있는 행운도 가졌다. 그 후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제일 높은 '참새언덕'이라 부르는 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며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특이하게도 참새언덕 바닥에는 별집 모양인 육각형 무늬를 볼 수 있어서 마치 별집과 같은 친근감이 들었다.



▶ 러시아 모스크바의 심장이라 불리는 붉은광장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떠나야 하므로 크레몰린 궁전을 잠시 둘러보고 오후 4시에 저녁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5시에는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모스크바는 항시 교통량이 많아 특히 공항으로 가는 A-104 도로는 지옥의 도로라며 가이드가 귀뜸을 해주었다.

1시간 30분을 달려 어제 입국했던 쉐르메쓰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밤 11시50분 키예프로 떠났다. 키예프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우리 일행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양봉협회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숙소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의 정경은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약 30분을 달려 키예프의 호스피탈라 거리에 있는 Rus호텔에 도착하였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자정을 넘겨 취침을 하게 되었다. 내일은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첫날이라 다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기분은 좋은 듯 하였다.

6월 16일

오늘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교류를 돕는 모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양봉산업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나라의 세미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세미나 개최지는 예브로페이씨카 광장에 있는 우크라이나 하우스 4층에 마련되었다. 회의장에는 세미나실과 전시장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다. 오전9시, 우리 일행은 행사장에 도착하여 협회를 위시한 꽃샘, 야생양봉, 조선밀봉원, 고려, 태원 등은 한국에서 준비해온 양봉관련 전시품들을 진열하기 시작하였다.

오전10시, 합동세미나는 유셴코 대통령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협력을 강력히 요망하셨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꿈속에서 기대해 왔다고도 말씀하셨다. "우크라이나는 벌꿀 생산은 세계 5~6위권에 들어가며 우크라이나의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지



▶ 우크라이나 하우스에서 개최된 세미나

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높은 기술과 최신 시설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두 나라가 서로 협조하면 더 좋은 양봉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 여러분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셨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한국양봉협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 하였고, 벌꿀을 이용한 꿀차 등 또 생산물의 광고 그리고 소비자가 바라는 바에 대해서 종합식품이 다양한 것



▶ 유센코대통령에게 각종 양봉기구 설명(서울농생대 우건석 명예교수)

에 매우 놀랐다고 말씀하셨다. “한국 양봉협회와 꽃샘의 가공공장을 방문했을 때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품전시와 여러분들의 친절로 본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의 특성, 포장에 매우 인상이 깊었으며 벌꿀을 비롯해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두 나라의 과학 기술의 교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 해주셨다. 대통령의 인사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 대통령을 모시고 한국 제품에 대한 전시회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시간동안 전시장을 둘러보시며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양봉산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공되어 생산되는 사실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 12시부터 두 나라의 합동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시작 전에 주 우크라이나 허승철 대사님과 전기현 한국양봉협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양국의 이해와 협력으로 큰 발전이 기대된다는 포부를 말씀하셨다. 이어 우크라이나 양봉연합회장은 꿀벌은 현명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관리되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회를 맡은 통합양봉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통령각하의 양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앞으로 두 시간에 걸쳐 두 나라 학술회의가 진행된다고 발표 하였다. 먼저, 서울대학교 우건석 교수가 한국 양봉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였으며 발표가 끝



▶ 양봉산물 전시장의 모습(좌측부터 : 전기현 회장, 주 우크라이나 허승철 대사)

난 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질병 방제에 어떠한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폴리스 생산량과 활용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프로폴리스가 가축의 질병방제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꿀벌에너지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지 등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와 밀랍이 첨가된 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또, 산림과학원의 정현관 박사가 한국의 중요 밀원식물과 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 발표가 끝나고 오전 발표회를 마쳤으며 주최 측에서 준비해온 음식으로 두 나라의 참가자들은 로비에 마련된 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여어갈 수가 있었다.

- 다음호에 이어서 -